https://doi.org/10.18856/jpn.2023.29.1.012

여성 주체성의 역사 발굴하기
- 이정옥의 『로맨스라는 환상』에 대하여

이주라*

1. 로맨스 취향에 대한 양가감정
2. 천년의 역사 속 숨겨진 여성의 주체성
3. 로맨스를 지배한 남성의 시각
4. 여성 주체성의 탐색과 여성 성장담의 가능성

국문초록

이정옥의 『로맨스라는 환상』(문학과지성사, 2022)은 로맨스 장르를 통해 여성 취향 독서 시장의 통시적 흐름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친밀한 관계의 변화 양상 그리고 여성 주체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저서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대체로 통시적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다. 1부는 중세, 2부는 근대, 3부는 현대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로맨스의 역사를 중세까지 확장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통 근대와 현대 로맨스의 역사적 흐름만을 제시해 왔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책은 중세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던 기사도 로맨스부터 시작하여, 낭만주의 시대의 운명적이며 비극적인 사랑을 거쳐, 근대 여성의 낭만주의 유토피아를 구현하며 로맨스가 상품화되는 과정까지 살피고 있다.

*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이 책은 로맨스 장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로맨스라는 장르로 대표되는 여성 정체성의 서사적 구축에 더욱 관심이 많다. 그리고 여성의 서사를 여성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로맨스의 대표작들이나 사랑에 관한 철학과 사회학 이론 그리고 문학 이론을 여성적 관점을 통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통해 독자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젠더적 편견을 깨닫는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주제어: 로맨스, 페미니즘, 여성, 주체성, 장르, 역사)

1. 로맨스 취향에 대한 양가감정

로맨스를 즐기는 사람은 있어도 로맨스를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로맨스는 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환상을 손쉽게 충족시켜주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이야기가 전부라고 판단한다. 평범한 소녀 혹은 처녀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사랑에 상처받은 남자를 만나 그 남자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가 로맨스의 전형이다. 예쁠 것도 없는 '나'를 매력적인 남자가 관심을 가져 주고 예뻐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 '나'는 그 남자가 그저 상처만 많은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그 남자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 최고의 남자였다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 설정 등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들의 허황된 낭만을 부추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로맨스는 십대 때 잠깐 즐기다 마는 취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로맨스 장르는 유독 분석 이론이 빈약하다. 최근 장르문학이 대중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로맨스 기반 작품에 대한 분

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웹소설 원작 작품들이 웹툰, 드라마, 영화 등으로 매체를 다양화하여 재창작될 때는 로맨스의 2차 IP화가 꽤 높은 편이다. 즉, 〈김비서가 왜 그럴까?〉나 〈옷소매 붉은 끝동〉과 같은 로맨스 웹소설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었을 때 인기와 흥행이 좋은 편인 거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나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지적 독자 시점〉이나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이 회귀, 빙의, 환생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작품에 대한 분석이 사회상과의 연관성이나 이 시대 청춘들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확연히 대비된다.

역사적으로도 로맨스 장르에 대한 이론은 많지 않다. 로맨스 연구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1980년대이다. 캐나다의 할리퀸 출판사가 영국의 로맨스 소설을 북미에 유통·판매하면서 로맨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출판업계에 큰 이슈가 되었던 1970년대 이후 이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 뒤따랐다. 재니스 래드웨이나 타냐 모들스키의 저서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로맨스 장르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정체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성 취향의 독서 경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성 취향의 독서 경험은 할리퀸의 성공이나 칙릿의 유행처럼 출판업계에서 예상치 못한 흥행을 이루었을 때에만 순간의 이슈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교양 있는' 연구자들은 오히려 사랑 '이야기'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대부분의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랑의 관계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하였다. 재클린 살스비나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 게른샤임 부부의 경우 사랑의 문제를 결혼 제도의 변화와 연관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앤소니 기든스나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에서 관계 맺기의 양상, 특히 친밀한 관계의 구조적 변동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깊고 넓다.

그러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로맨스라는 사랑 이야기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학문적 편견은 이것이다. 흔히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맨스는 여성의 취향이라는 사실이다. 여성의 낭만적 환상만 충족시켜주는 로맨스 장르는 사랑에 대한 철학적 고찰도 담고 있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민감한 이슈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로맨스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영미의 근작『신데렐라는 없었다』(서해문집, 202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대중문화에 그려진 사랑 이야기가 신데렐라 스토리였던 적은 매우 드물었으며, 그나마 신데렐라 스토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때는 경제적 신분상승의 가능성과 사회적 평등에 대한 기대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을 때뿐이었다. 그 뻔한 사랑 이야기 안에도 낭만적 환상 외에 사회·경제적 변화상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들의 태도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정옥의『로맨스라는 환상』(문학과지성사, 2022)은 한국의 대중문화 연구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로맨스 장르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분석을 담아내고 있다. 그간 로맨스 장르를 분석했던 책들이 대부분 장르로서의 로맨스의 창작방법론을 전달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었다면, 이 책은 로맨스라는 장르를 둘러싼 담론의 역사까지 담아내고 있다. 물론 로맨스 장르의 주요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다. 로맨스 장르가 12세기 궁정풍 기사도 로맨스부터 시작하여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19쪽) 장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맨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었는가. 이는

저자 스스로의 질문이기도 하다. 여성을 겨냥한 사랑이야기를 상품화한 장르로서의 로맨스에 대해 저자 스스로도 큰 매력을 못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로맨스가 각 시대의 사회·문화·역사를 반영한 각본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로맨스는 낭만적 환상이라고 폄하되기 쉽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맨스를 즐기면서도 로맨스 취향을 숨기려 급급한다. 좋아하지만 싫은 척하는 취향의 균열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양가감정 속에서 소녀들의 취향은 사회와 역사의 표면에 쉽게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양가감정에서 벗어나 로맨스라는 장르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선으로 분석할 때가 되었다.

2. 천년의 역사 속 숨겨진 여성의 주체성

로맨스라는 장르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책은 이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흔히 로맨스는 여성 취향의 사랑 서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맨스 장르는 여성이 출판계의 주요 독자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인기를 얻었던 근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쓰는 로맨스라는 단어에 두 가지 개념이 교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장르로서의 로맨스도 로맨스이지만, 사랑에 대한 환상을 의미하는 로맨스도 로맨스이다. 저자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랑에 대한 환상은 'romance'라고 지칭하고 문화적 텍스트로 특화된 장르로서의 로맨스는 'the romance'라고 정리한다. 이 두 개념의 구분을 독자가 꼭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의 구분은 로맨스 장르에 대한 우

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발판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로맨스라는 장르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를 장르로서의 로맨스에만 국한하여 생각하면 앞선 대답처럼 '근대 이후'라는 손쉬운 답이 나온다. 이럴 경우, 그 흔한 사랑 이야기에 왜 하필 로맨스라는 명칭을 붙였는지, 또한 로맨스에 나오는 사랑의 양상은 왜 현실과 다르게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낭만적이기만 한지, 알 수 없다. 로맨스는 왜 낭만적 사랑 이야기만 다루나요? 아, 그건, 로맨스니까요. 이러한 동어반복적 논리의 구조에 갇히는 것이다. 이 책은 로맨스가 장르로서의 로맨스에 국한되지 않고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서의 로맨스로 쓰인 역사도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서의 로맨스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일까. 이 질문을 통해 로맨스의 역사는 천년 전 유럽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대체로 통시적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다. 1부는 중세, 2부는 근대, 3부는 현대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다. 근대와 현대의 구분은 모던의 시대와 포스트모던의 시대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보통 근대와 현대 로맨스의 역사적 흐름만을 제시해 왔던 다른 연구들과 달리, 로맨스의 역사를 중세까지 확장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맨스의 개념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즉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서의 로맨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중세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던 기사도 로맨스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구성은 매우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의 문학 연구자들은 안다. 로맨스의 어원이 프랑스의 기사

도 문학을 지칭했던 '로망스romance'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이다. 그래서 장르로서의 로맨스의 역사를 설명할 때도 표면적으로는 로망스에서 시작된 장르가 근대에 와서 로맨스라는 장르로 정착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어떻게? 남성 편력 기사의 모험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사도 문학이 어떻게 여성주인공이 이성애적 사랑을 나누는 근대 로맨스가 되었지? 기사도 문학과 장르로서의 로맨스 사이의 연결점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책은 기사도 문학에서 근대 로맨스 정착까지의 역사를 일관성 있게 구축한다. 중세 기사도 문학은 남성 영웅의 성장 플롯이며, 기사의 사랑을 받는 여성은 남성 영웅을 위한 트로피일 뿐이다. 여기에서 사랑은 남성 영웅으로서 기사가 지닌 고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신성하고 고귀한 사랑에 대한 찬양은 이후 낭만주의 시대에 부활한다. 낭만주의 시대는 현실을 초월한 열정적인 사랑의 전성시대였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궁정풍의 순수한 사랑은 낭만주의 시대의 운명적이고 열정적인 사랑과 결합하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사랑을 통해 억압적 사회의 구속을 벗어나려는 개인의 고투를 그려냈다. 사회를 벗어나는 개인의 탄생, 자발적 주체의 탄생을 그려낸 것이다. 그러나 이 개인은 여전히 남성 주체로 설정되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과 개인성을 깨닫는 존재는 남성이고, 여성은 이러한 남성의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으로만 그려졌던 것이다.

이런 남성중심적인 서사가 여성중심적 서사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다. 빅토리아 시대는 보수적인 일부일처제 문화가 정착했던 시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대에 여성 중심의 독서 시장이 팽창하였다. 이 시대 부르주아 계층의 아내들은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리고 가정 중심의 활동에 국한된다. 그녀들은 경제적 여유

와 더불어 시간적 여유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여성들에게 사회는 교양을 강조하게 된다. 이 여가 시간을 교양있게 즐기기 위한 수단이 독서였다. 여성 중심의 독서 시장이 형성되면서 낭만주의 시대부터 인기 있었던 사랑 이야기는 "여성을 위한 낭만적 유토피아"(83쪽)로 전환되었다. 남성의 사랑이야기를 여성들이 전유한 것이다. 이렇게 근대 장르로서의 로맨스는 기사도 문학의 순수하고 신성한 사랑과 낭만주의 문학의 열정적이고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여성적 관점에서 변형시키면서 형성되었다.

3. 로맨스를 지배한 남성의 시각

로맨스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낭만적 사랑 이야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에 내재한 묘한 균열을 읽어내게 된다. 로맨스라고 불리는, 이성애 중심의 낭만적 사랑 이야기에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꽤 오래 뿌리 박고 있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로맨스는 여성의 서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혼종되어 있다. 『로맨스라는 환상』은 로맨스가 여성 취향의 문학이었다라는 환상, 그 편견도 깨고자 한다. 장르로서의 로맨스를 넘어서서 낭만적 사랑 이야기에 숨어 있는 남성 중심의 시각을 하나하나 드러낸다.

무엇보다 로맨스 장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도 문학과 낭만주의 문학은 남성 개인 주체의 형성을 위한 성장담이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랑'이라는 것이 근대 문학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사랑을 통해 자발적 개인 주체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는 순간, '나'는 타인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너'와 다른 '나'라는 주체의 경

계선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완전한 합일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계속 외부의 방해를 받게 되면서 '나'는 '나'의 주체성을 위협하는 억압적 사회를 인식한다. 이를 통해 '너'와 다른 '나' 그리고 사회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한 문학적으로, 모두 일반적 남성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는 사실이다.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베르테르라는 남성 개인이 겪은 사랑의 열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여인 로테는 작품의 표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발견되는 대상, 베르테르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 작품은 로테를 향한 베르테르의 숭고한 사랑의 열정을 그려내는 데에 치중할 뿐, 실제 로테라는 여인이 베르테르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낭만주의 시대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남성 주체가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감정적 깨달음과 주체성을 방해하는 억압적 사회와 대립하는 구도를 띄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 주체가 감정적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는 기능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현실에 실재하는 존재로서의 성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항상 문학 속에 존재하는 여성들은 환상 속의 여인으로만 남게 된다. 현실에 절대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성녀'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이다. 혹은 주인공 남성을 타락시키는 절대적인 악으로서의 '창녀'로 그려질 것이다. 성녀이든 창녀이든 결국 여성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캐릭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뇌하며 세상을 겪어나가는 실체는 결국 남성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낭만주의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로맨스 영화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봄날은 간다〉와 〈건축학 개론〉에 대한 분

석 또한 이 작품들에 내재한 남성중심적 시각을 신랄하게 드러낸다. 이 두 작품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화면을 통해 아련한 첫사랑의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 여자주인공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첫사랑 '그녀'에서 순식간에 '쌍년'으로 추락해 버린다. 여기에서도 사랑을 하며 들떴다가, 행복했다가, 다시 괴로워하는 주체는 남자주인공이다. 남자주인공의 감정은 관객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지만, 여자주인공의 감정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 '라면 먹고 갈래요?'라고 먼저 제안했던 그녀가 왜 갑자기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함께 이어폰을 끼고 전람회의 노래를 들었던 그녀가 왜 갑자기 다른 선배의 부축을 받으며 자취방에 함께 들어갔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이 두 작품에서 여자들은 남자주인공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 없이 변덕스러운 존재로 그려질 뿐이다. 이 미스터리함이 여자주인공의 매력을 배가시키기는 하지만,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여자의 진짜 감정과 사랑은 그려지지 않는다.

로맨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랑 이야기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사랑에 대한 담론에서 여성의 시각이 많이 부재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로맨스라는 환상』은 사랑 이야기를 다룬 문화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랑 이야기에 대한 메타 담론인 문학 이론 또한 남성적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근대 계몽주의 철학가 루소가 피그말리온 신화를 멜로드라마이자 근대판 로맨스인 『피그말리온』으로 각색하면서 어떻게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드러냈는지 확인한다. 루소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통해 인간의 생명력을 얻은 갈라테이아를 근대 개인 남성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려낸 존재로 변형시켰다. 이를 통해 루소는 여성을 근대 개인 남성의 능력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화학의 대가인 조지프 캠벨 또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신화를 분석하였다고 판단한다. “캠벨의 원질신화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다. 영웅이란 개인 남성의 선택의지와 남성적 특권이 결합된 신화화된 남성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 영웅의 자아상이 없다는 점이다.”(294쪽) 신화의 기본 서사인 영웅 신화에서도 주인공인 영웅을 무의식적으로 남성 개인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예술 작품과 문화 담론 속에서 주체의 자리에 놓이는 존재가 거의 자동적으로 개인으로서의 남성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 책은 명확하게 지적한다.

문화 전반에 내재한 젠더 불균형에 대한 관점은 최근에 자주 문제 제기되고 있다. 로맨스라는 장르는 분명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자발적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욕망은 근대 시민으로 인정받았던 남성을 넘어 독서를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주체성을 추구하였던 여성에게까지 전유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로맨스에는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시각이 혼종되어 있다. 그리고 종종 남성들의 환상으로 구축된 낭만적 사랑의 내용을 여성들이 비판 없이 흡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로맨스가 보수적인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장르라고 비난받기도 하는 것이다. 『로맨스라는 환상』은 로맨스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내재된 이러한 젠더 불균형과 균열을 잡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남성의 로망이 중심이 되었던 로맨스 서사에서 벗어나 여성 스스로가 욕망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조망한다.

4. 여성 주체성의 탐색과 여성 성장담의 가능성

『로맨스라는 환상』은 여성의 주체성이 문학사 및 문화사에서 발굴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저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조지프 캠벨이 구축한 영웅 신화의 공식이 남성 영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다나 헬러의 말을 빌어 "이로써 여성학자들은 여성들이 수행할 과제는 남성들의 조력자와 적대자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아상과 새로운 여성 모델을 발굴하고 나아가 새롭게 정립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선언했다."(294쪽)라고 말한다. 저자는 제3세대 페미니즘 시대 이후 계속해서 타진되고 있는 여성 주체성의 서사를 로맨스라는 장르 속에서 찾아 나가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단순히 로맨스라는 장르의 전형성이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 취향의 문화적 구축 과정에 대한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사 속에서 여성 주체성을 발굴한다는 점은 꽤 시대적인 과제이다. 다시 말해 현재 제4세대 페미니즘의 물결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힘들었을 탐색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페미니즘 리부트를 통해 일상을 지배하는 젠더 불균형의 문제 및 무의식을 지배하는 문화적 태도나 시각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정립되지 않았다면 로맨스로 대표되는 여성 중심 취향의 장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로맨스에 대한 분석은 페미니즘의 역사적 흐름과 맞물려 있고, 페미니즘은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동과 연동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여주는 로맨스 작품에 대한 분석은 모두 정치·경제·사회의 변동과 맞물린다. 중세의 기사도 문학마저, 12세기의 프랑스 판본과 15세기의 영국 판본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십자군 원정이 끝

나면서 기사들의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개인 편력 기사가 사라지고 왕실 소속 기사단이 만들어지면서 왕실로 대변되는 국가에 헌신하는 남성 영웅의 이야기로 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궁정풍 사랑 이야기는 축소되고 명예로운 기사의 모험 이야기로 변화한다. 시대를 뛰어넘어, 칙릿의 시대로 넘어가 보자. 21세기 초반 칙릿의 유행 또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자기 계발의 담론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였다. 그리고 현재는 '썸'이라는 개념으로 대표할 수 있듯이, 고도로 개별화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 균열이 생기고,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액체사랑liquid love'이라는 액체화 되어 유동하는 사랑의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은 사랑으로 대표되는 친밀한 관계의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로맨스라는 문화적 텍스트의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회사적 흐름을 문화 텍스트를 통해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책을 만약 로맨스라는 장르에 대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로맨스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로맨스의 정전cannon이라 할 만한 작품들의 계보를 전반적으로 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여기에 소개된 작품들은 유럽 및 북미의 로맨스 및 한국의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며, 중세 유럽 문학에서 현대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기사도 문학의 대표작 『아서왕의 죽음』부터 루소와 괴테의 대표작,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 할리퀸 및 1970~80년대 로맨스 출판사의 대표작들, 〈브리짓 존스의 일기〉와 〈섹스 앤 더 시티〉라는 칙릿 작품, 〈500일의 썸머〉와 같은 로맨스 영화의 대명사와 같은 작품들, 그리고 〈봄날은 간다〉와 〈건축학 개론〉과 같은 한국 영화와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품위있는 그녀〉와 같은 한국 드라마까지 로맨스의 대

표작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만날 수 있다. 문화권의 경계, 시대의 경계, 매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로맨스의 대표작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자칫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이라서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을 작품 분석을 통한 풍부한 예시를 통해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한다.

물론 이 모든 작품들에 대한 분석의 관점은 '여성 주체성의 탐색'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석되는 작품은 〈마리 퀴리〉나 〈히든 피겨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나 〈윤희에게〉와 같이, 여성들이 억압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캠벨의 남성 신화 및 남성 성장담에서 벗어나 여성 스스로의 욕망을 찾아내어 여성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구축해 나가는 가능성을 최근 문화 텍스트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로맨스라는 장르는 해체되고 여성 정체성 구축의 서사가 부각된다.

그래서 『로맨스라는 환상』은 '로맨스' 장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로맨스라는 장르로 대표되는 '여성 정체성'의 서사적 구축에 더욱 관심이 많은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성의 서사를 여성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로맨스의 대표작들이나 사랑에 관한 철학과 사회학 이론 그리고 문학 이론을 여성적 관점을 통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젠더적 편견을 깨닫는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

다만, 한국 연애소설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연애와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 변화, 발전해 나갔는지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로맨스가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로맨스가 그리는 전형적 이야기를 천년 동안 반복적으로 소비하는지도 짐작하기는 어렵다. 『로맨스라는 환상』은 로맨스에 대해 가졌던 환상을 깨기 위한 저서이다. 남성 중심의 서사를 통해

형성된 낭만적 사랑이라는 모순적 틀을 깨고 나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서사를 구축하기를 요구하는 책이라 하겠다.

Abstract

Exploring the History of Women's Subjectivity - About Lee Jung-ok's *The Illusion of Romance*

Lee, Ju-Ra(Wonkwang University)

Lee Jung-ok's *The Illusion of Romance* (moonji, 2022) is a book that examines the syntactic flow of the women's taste reading market, the patterns of intimate relationships there, and the formation of women's identity through the romance genre.

This book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It was largely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diachronic flow. The first part deals with medieval, second part modern, and third part modern romance. The biggest advantage of this book is that it extends the history of romance to the Middle Ages. This is a point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that have usually presented only the historical flow of modern and contemporary romance. This book starts with chivalry romance, which began in medieval France, and goes through the fateful and tragic love of the romantic era, embodies the romantic utopia of modern women, and examines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romance.

This book is more interested in the narrative construction of female identity represented by the genre of romance than in the genre of romance itself. And the main point is to interpret women's narratives from a female perspective. Therefore, it helps to critically approach the representative works of romance accumulated so far, philosophy, sociological theory, and literary theory about love from a female perspective. This allows the reader to experience amazing moments when he or she realizes the gender bias he or she unconsciously had.

(Keywords: romance, feminism, women, subjectivity, genre, history)

논문투고일 2023년 1월 6일
논문심사일 2023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6일